

조선시대 ‘선생’에 관한 연구

— 『조선왕족실록』에 나온 ‘선생’을 중심으로 —

이단(중남민족대)*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 조선시대의 “선생”에 관한 문화 분석 |
| 2. 조선시대의 “선생”에 관한 특징 | 4. 마무리 |

1. 들어가기

예로부터 지금까지 선생에 관한 의미 연구가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선생’에 관한 의미 분석은 주로 사전에서 나열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장신항(2007)은 한국어 높임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선생’에 관하여 논술했지만 역사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어 ‘선생’에 대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나는 이전의 연구에 기초하여 자료를 보완해서 ‘선생’에 대하여 다시 연구하기로 하겠다.

중국어 ‘선생(先生)’이란 단어를 볼 때, 본뜻은 글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형’도 ‘선생’이라고 불리었으며, 나중에 차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어 ‘선생’이 언제 중국어에서 차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요 근래의 한

*이 논문은 중남민족대학교 프로젝트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CSQ12025]

국어에는 ‘선생’이라는 호칭이 너무 험하게 쓰이고 있다. 운전기사도 선생님, 수사관도 선생님, 달구지꾼도 선생님, 스승도 선생님, 제자도 선생님이다. 교사(敎師)도 선생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술이 뛰어난 사람’을 존대하여 부를 때에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보다 일찍 도를 알게 된 사람, 즉 선배 또는 ‘덕망이 높은 분’을 선생이라고 하였고, 조선왕조시대에는 퇴계(退溪)선생, 율곡(栗谷)선생, 우계(牛溪)선생등이라고 했으나 아무에게나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학덕이 극히 높은 어른 이외에는 좀처럼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선생’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선생’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조선시대의 “선생”에 관한 특징

2.1. 조선시대의 ‘선생’에 관한 구조특징

‘선생’이라는 호칭도 조선시대에는 엄격하게 사용하였다. 그 시대에 학생이나 하급직원을 가르치는 직책 가운데에는 ‘교수(敎授), 훈도((訓導), 교관(敎官)’등이 있었고, 이 밖에 민간의 서당에서 주로 한자나 한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訓長’이라고도 하고 ‘유사(儒師)’라고도 하였다. 여기의 ‘師’도 ‘학문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선생’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¹⁾ 세종 때(1443)에 한글이 창제된 다음, 바로 나온 책들부터 스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유명한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도 ‘스승’라고 되어 있다.

조선시대(1392~1910) 한국어에 나타난 ‘선생(先生)’이란 형태는 중국어에서 차용되어 쓰이던 ‘先生’이 있고 한국어로 된 ‘선싱’과 ‘선생’도 있다. 낱짝새프로그램²⁾으로 살펴보면 15세기~19세기에는 한어로 쓰이던 ‘先生’의 사용빈도는 ‘580’개, ‘선싱’의 사용빈도는 ‘2398’개, ‘선생’의 사용빈도는 ‘4’개이다.

1) 장신항(2007), 「선생이란 호칭」, 『오늘날의 국어생활』, 도서출판 박이정, 203면.

2) 낱짝새SynKDP는 전주대학교 소강춘 교수와 그 제자(김진규, 박진양)들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통합형 한글 데이터 처리기인 SynKDP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를 일명 ‘낱짝새’라 부른다. 홍윤표(2012), 『국어정보학』, 태학사, :252면

그중 ‘先生’과 ‘선싱’은 ‘성, 자, 호, 이름+先生 혹은 선싱’이란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어 ‘先生’이 미친 영향으로 조선시대 한국어에서 나온 ‘선생’의 구조 형식은 《조선왕조실록》³⁾ 과 《고종-순종실록》⁴⁾ 에 의하여 살펴보도록 하면 아래와 같다.

'선생'의 구조	호칭어	지칭어
선생	태종4년(1404), 세종10년(1428)	세종14년(1432), 세종30년(1448), 세종16년(1434), 성종6년(1475), 성종9년(1478), 성종12년(1481), 성종13년(1482), 성종15년(1484), 연산3년(1497), 연산8년(1502), 중종4년(1509), 중종14년(1519), 중종16년(1521), 중종28년(1533), 중종29년(1534), 중종30년(1535), 중종31년(1536), 명종19년(1564), 명종21년(1566), 선조7년(1574), 선조8년(1575), 선조13년(1580), 선조30년(1597), 선조33년(1560), 광해7년(1615), 광해13년(1621), 인조2년(1624), 인조16년(1638), 효종2년(1651), 효종9년(1658), 효종10년(1659), 현종1년(1660), 현종12년(1671), 현종14년(1673), 현종(개수 실록) 1년(1660), 숙종3년(1677), 숙종20년(1694), 숙종39년(1713), 숙종41년(1715), 숙종(보권정우실록)25년 1699, 영조1년(1725), 영조13년(1737), 영조15년(1739), 영조30년(1754), 영조40년(1764), 정조1년(1777), 정조2년(1778), 정조16년(1792), 정조19년(1795), 정조22년(1798), 순조12년(1812), 순조14년(1814), 순조17년(1817), 순조22년(1822), 순조30년(1830), 고종19년(1882), 고종25년(1888), 고종39년(1902)
선생+님	세종3년 1421	세조3년(1457), 선조 즉위년(1567)
관직+선생		박사 선생(博士先生) 세조14년(1468) 국자감(國子監) 선생 고종35년(1898)
장소+선생		고을 선생 성종20년(1489)
접두사'노'+선생		노선생(老先生) 고종18년(1881)
높임말"대인"+선생		대인 선생 선조29년(1596), 숙종33년(1707)
성, 자, 호, 이름+선생		오류 선생(五柳先生)세종5년(1423), 이천 선생(伊川先生) 세종14년(1432), 정이천 선생(程伊川先生) 세종29년(1447), 예 선생(倪先生) 세종32년(1450), 이천(伊川) 선생 연산3년(1497), 절효 선생(節孝先生) 연산7년(1501), 노천 선생(老泉先生) 중종15년(1520), 각로 선생(關老先生) 중종32년(1537), 동선생(董先生) 사 선생(史先生)

3)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시스템이 제작한 국역 조선왕조실록 CD.

4) 조선왕조실록연구회와 서울시스템주식회사간행 1998

	<p>종중32년(1537), 모재 선생(慕齋先生) 명종9년(1554), 서경덕(徐敬德) 선생 명종17년1562, 김 선생 평필(金先生宏弼) 명종21년(1566), 남곡 선생(南谷先生) 선조1년(1568), 김 선생 선조3년 1570, 대곡 선생(大谷先生) 선조12년(1579), 퇴계 선생(退溪先生) 선조34년(1561), 구암 선생(龜巖先生) 선주 수정(시록)4년 (1571), 덕계 선생(德溪先生), 선주 수정(시록)4년 (1572), 일재(一齋) 선생 선주 수정(시록)9년 (1576), 옥계 선생 선주 수정(시록)11년 (1578), 대곡 선생(大谷先生) 선주 수정(시록)12년 (1579), 울곡 선생(栗谷先生) 선주 수정(시록)15년 (1582), 선주 수정(시록)20년 (1587), 선주 수정(시록)24년 (1591), 명곡 선생(鳴谷先生) 선주 수정(시록)27년 (1594), 선주 수정(시록)30년 (1597), 청송 선생(聽松先生) 우계 선생(牛溪先生) 선주 수정(시록)31년 (1598), 내암 선생(來庵先生) 선주 수정(시록)35년 (1602), 청송 선생(聽松先生) 광해즉위년 (1608), 대곡 선생(大谷先生) 광해4년(1612), 여헌 선생(旅軒先生) 인조1년(1623), 정 선생(程先生) 인조3년(1630), 사계(沙溪) 선생 인조9년(1631), 여헌 선생(旅軒先生) 인조15년(1637), 고봉 선생(高峰先生) 인조24년(1646), 명도 선생(明道先生) 효종5년(1654), 신독재(愼獨齋) 선생 효종7년 (1656), 포은 선생(圃隱先生) 현종4년(1663), 유해손(劉垓孫) 선생 현종7년(1666), 이 선생(李先生) 숙종7년(1681), 현석 선생(玄石先生) 숙종21년(1695), 농암 선생(農巖先生) 숙종33년(1707), 여 선생(呂先生) 숙종37년(1711), 회암 주 선생(晦庵周先生) 숙종40년(1714), 명재 선생(明齋先生) 숙종(보권정우시록)40년 1714, 정원 선생(政院先生) 영조6년(1730), 도암 선생(陶菴先生), 영조22년(1746), 귀봉 선생(龜峯先生) 영조27년(1751), 주 청암 선생 집략(朱靑菴先生輯略) 영조47년(1771), 소 선생(邵先生) 영조51년(1775), 동포 선생(東浦先生) 정조15년 (1791), 고정 선생(考亭先生) 정조23 (1799), '남곽 선생(南郭先生)' 순조1년 (1801), 만남 선생(潘南先生) 순조23년 (1823), 최 선생(崔先生) 고종즉위년 (1863), 정몽주(鄭夢周) 선생 고종37년 (1900), 약봉 선생(藥峰先生) 고종39년 (1902), 고종43(1906).</p>
--	--

조선시기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관은 성리학을 가르침으로 하여 ‘선생’은 표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제자문인’(弟子文人)에 대한 존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선생’이 담당하는 책임에 의하여 ‘국왕·세자교육과 선생(國王世子教育科先生)’, ‘관학교육과 선생(官學教育科先生)’, ‘사학교육과 선생(士學教育科先生)’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국왕·세자교육과 선생’은 국왕에게 성리학적 소양과 실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경연(經筵)이라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했다⁵⁾. ‘관학교육과 선생(官學教育科先生)’은 성균관·사부학당·향교의

5) 남지대. 조선초기의 경연제도-세종, 문종년간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6, 1980:119.

교수관직으로 보이고 조선 초기의 관학 체제 정비에 힘입어 학문의 진흥 및 관리 양성에 주력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에 힘썼다고 한다.⁶⁾ ‘사학교육과 선생(士學教育科先生)’은 왕도정치 및 향촌 자치를 이상으로 표방하고 중앙 정계로 진출한 사림파는 군주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경학(經學)의 능력에 힘입어 경연 등에 많이 진출하였다고 했다.⁷⁾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에는 등급차이가 뚜렷하므로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불렀을 때, 자주 관직 즉 ‘대감(大監), 영감(令監), 영상(領相), 김반서(金叛書), 박참판(朴參判)’을 했다고 해서 한국어 ‘선생’을 호칭어로 쓰이던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중국어 고서에 나온 “先生”의 영향으로 한국어 ‘선생’은 지칭어로 쓰이던 경우 즉 ‘관직+선생’, ‘장소+선생’, ‘접두사 “노”+선생’, ‘높임말 “대인”+선생’, ‘자, 호, 이름+선생’ 등 형식이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 위와 같이 교직으로 명명하던 ‘선생’도 많이 있다.

2.2. 조선시대에 “선생”에 관한 의미특징

아래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고종-순종실록>에 나온 ‘선생’이란 용어를 예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한 관부에 앞서 재임했던 인물들을 지칭하는 경우

ㄱ: 그런데 전조 낭관(銓曹郎官)은 달 수를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더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으며, 낭관을 경유하여 나온 자는 높여 선생(先生)이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종종22년(1527)

ㄴ: 경기에서 감사나 도사(都事)를 지낸 사람을 선생(先生)이라 하는데, 그 부모나 아내의 초상에 여막(廬幕)과 분묘(墳墓)를 설치하는 일을 감사가 각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면 각 고을에서는 민가(民家)에 역을 책임 지워서 공공연히 조발(調發)하여 관가의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명종 20년》(1565)

ㄷ: 하물며 문과(文科) 출신자는 선생과 후진(後進)의 분수가 있으며, 좌주

6) 禹仁秀.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歷史教育論集 5, 1983:146.

7) 禹仁秀.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歷史教育論集 5, 1983:146.

(座主)와 문생(文生)에 이르러서는, 비록 자기의 벼슬이 위에 있을지라도 항상 서로 추손(推遜)하며 감히 항례(抗禮)하지 못하여 대략 부자(父子)의 격차와 같은데, 고려[前朝] 때에는 비록 권신(權臣)이 집권하였으나, 조정의 위에서는 이 풍습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5백 년 나라를 유지하게 한 비는 사문(斯文)의 풍속이 엄하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종9년(1478)

조선 왕조의 정치 기구는 절대왕권과 양반관료 사이의 권력 조화가 배려된 구조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앙의 80여 관아 중 대부분이 그 직능에 따라 육조에 소속된 속아문이었다. 그 밖의 관아로는 최고 정책기관인 의정부를 비롯해 육조, 승정원,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삼사, 중추부, 오위도총부 등이 있었다. 그리고 특수기관으로 의금부·한성부·개성부·겸사복(兼司僕)·내금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왕족, 왕의 외척과 공신에 대한 예우기관인 종친부·충훈부·의빈부(儀賓府)·돈녕부 등이 있었다. 의정부는 백관과 서정(庶政)을 총리(總理)하는 동반의 최고 관부로서 영의정과 좌의정의 삼정승이 수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 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이 보좌하며, 의정부 아래에 각 부의 행정을 관할하는 육조가 있었다. 육조에는 각각 판서·참판·참의의 삼당상(三堂上)이 있고, 그 밑에 정랑(正郎)·좌랑(佐郎)의 두 낭관이 있었다. 조선시대 육조(六曹)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屬司 : 하급의 관서)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 맡은 정6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1)ㄱ에서 나온 '낭관'이란 관직, 그리고 (1)ㄴ에 나온 조선시대 관직인 감사와 도사, 또한 (1)ㄷ에서 나타난 벼슬이란 말에 비추어보면 '선생'은 조선 시대에 관직을 지니고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파악할 수 있다.

(2) 나보다 일찍 도를 알게 된 사람, 즉 '선배' 또는 '덕망'이 높은 분을 지칭하는 경우

ㄱ: 세종(世宗) 때에는 본래 문사(文士)를 교양시켜 왔으므로, 성균관(成均館)의 사표(師表)의 책임자는 모두 큰 덕망이 있는 원로(元老)들이었으며, 선생 밑에서 옷깃을 여미고 있는 자는 훌륭한 선비의 기풍을 가진

자였습니다. 혹은 백발(白髮)이 되도록 경적(經籍)을 탐구하기도 하고 또는 10년이 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않은 자도 있었으니, 어찌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서책을 끼고 다니지 않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성종15년(1484)

- 나: 그의 문인 홍가신(洪可臣)이 주자(朱子)가 이연평(李延平)을 기린 말을 인용하여 ‘주자께서 『연평 선생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정성스럽고 후덕하여 주위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그 분의 한계를 볼 수 없으니, 참으로 대단한 군자입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선생의 덕행과 서로 부합된다.’ 하였다. 선주 수정(시록)24년 (1591)

2ㄱ에서 나온 ‘선생’은 큰 덕망이 있는 원로(元老)를 가리키고 2나에서 나온 ‘선생’은 덕행을 가진 군자라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선생’은 유학을 연구하는 선비를 가리킬 수도 있다. 유학자다운 효悌충신(孝悌忠信)의 도덕적 규범, 그리고 인격적인 감화품성은 ‘선생’이란 용어에 담겨있었다고 생각한다.

(3) 남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존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ㄱ: 조선은 16세기말 이후 이학 지상주의시대(理學至上主義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성리학으로 무장한 학덕을 겸비한 인물이 선생으로서 중시되고 대우를 받으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었다. ‘선생은 유자(儒者)의 학교를 맡아 가르치시니 선지선각(先知先覺)이시라, 그 나아오는 자를 허락하시어 다행히 물리치지 마시고 밝게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므로, 나는 그가 귀(貴)하되 예를 좋아하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바로잡고자 함을 기뻐 하였노라.(세종16년(1434))
- 나: 왕세손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아무가 바야흐로 선생께 업(業)을 받으려 하여, 감히 뵈기를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將命者)가 들어가고하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부덕하오니, 청하건대, 왕세손께서 욕됨이 없게 하소서.’ 한다. 세종30년(1448)
- ㄷ: 그러하므로 은혜의 경중 대소(輕重大小)는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오랫동안 현관(賢關)에 머물면서 큰 은혜로 기르시는 성상의 역복(樸)의 교화를 입고 선생의 명령(螟)의 가르침을 받아 덕을 상고하고 업(業)을 물은 것이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성종13년(1482)

조선시기에 각급 교육 기관을 통한 성리학의 교육도 활발해졌다. 성리학에 대한 인식이 깊고 가르침을 담당하는 인물을 ‘선생’이라고 한다. (3)ㄱ, ㄴ, ㄷ에서 나온 ‘선생’은 도를 가르치고 업을 수여하며 의혹을 풀어준다는 교육자로서 배움을 받은 자는 그를 높여 ‘선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학생이나 하급직원을 가르치는 직책 가운데에는 ‘教授、訓導、敎官’ 등이 있었고, 이 밖에 민간의 서당에서 주로 한자나 한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訓長’이라고도 하고 ‘유사(儒師)’라고도 하였다.⁸⁾ 이러한 경향은 후세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선생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사·박사·사부·사유·사장·훈장 등은 교육 대상자의 신분·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4) 나이가 드신 분께 존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나이 80인데도 뜻이 쇠하지 않아 장경(莊敬)함이 날로 더해져 사람들은 모두 선생을 우러러보며 도맥(道脈)의 장수(長壽)라고 하였다. 선조13년(1580)

여기에 나온 ‘선생’의 의미는 중국어인 ‘先生’이 나타난 ‘연장’⁹⁾이란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5) 향촌에 은둔하여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향약의 실시 등을

8) 장신향(2007), 『선생이란 호칭』, 『오늘날의 국어생활』, 도서출판 박이정, 203면

9) ‘선생’이란 단어(는) ‘부(父), 형(兄)’을 가리킬 수 있을 때부터 농후한 존중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에 대한 존중 의미가 더욱 선명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주로 세 가지들 들 수 있다. 첫 번째, 중국 고대 종법사회에서는 예의를 가장 중요시 하였고, 먼저 태어난 사람을 높여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 표현의 기본이다. 두 번째, 모계 씨족사회이후, 인류사회는 남성 권력 중심인 사회에 진입하였고, 남성은 사회의 지배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생’이 먼저 태어난 남성 혹은 여성을 지칭하던 데서 남성만을 가리킨 것은 남성의 존귀를 체현한 것이다. 세 번째, 사회는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고, 부(父), 형(兄)은 가정생활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하므로 부(父), 형(兄)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생’의 존경의미를 증가하였다. 陳慧, 先生稱謂研究, 武漢大學碩士論文, 2005:7

통하여 향촌 교화에도 힘썼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선생은 40년간 산림 속에서 사셨다. 선생이 문을 닫고 들어앉아 뜻을 구한 것은 반드시 그만한 학문이 있어서일 것이고, 겸손히 물러나서 확고하게 지킨 것은 반드시 그만한 소견이 있어서일 것이며, 배고픈 것도 잊고 구경을 하며 늙어가는 것도 모른 것은 반드시 그만한 낙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산간 계곡에서 노닐며 거문고와 책에 묻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만을 보았을 따름이지, 그의 내면에 간직된 것에 대해서는 엿보아 헤아린 이가 적었다. 그리고 선생은 평생 남들에게 칭송되고 싶어하지 않았기에 그 남긴 뜻을 어길 수 없어 감히 묘비명을 입언지사(立言之士)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 > 선주 수정(시록)12년 (1579)

조선은 16세기말 이후 이학 지상주의시대(理學至上主義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성리학으로 무장한 학덕을 겸비한 인물이 선생으로서 중시되고 대우를 받으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산림(山林)이었다. 산림은 때로는 정계에 진출하여 자신의 포부를 펴기도 하거나 대개는 향촌에 은둔하여 서재나 서원을 세움으로써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생’의 의미는 (5)에 든 예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도하는 기로숙덕(耆老淑德)의 인물들이 산림으로 추앙받고, 또 그들이 한 시대의 사표로서 선생으로 존칭되면서 선생은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재야에 은거한 학덕을 겸비한 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6) 부정 또는 혐오의 의미가 내포된 경우

선생들은 창기(娼妓)를 끼고 앉아 후한 뇌물을 요구하다가 조금이라도 뜻에 차지 않으면 신래의 종을 때려서 혹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또 선생이 데리고 온 노졸(奴卒)들이 기탄없이 포학을 부리는데, 뜻에 차지 않으면 그릇과 음식을 모두 깨뜨리고 밟아 뭉개는 등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중종35년(1540)

위와 같이 ‘선생’으로 칭해지는 가식적인 성리학자에 대한 비판·조소와 더

불어, 성리학적 소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을 오히려 ‘선생’이라고 한 새로운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성리학의 말폐가 드러나고 유학자를 상징하던 ‘선생’의 의미가 점차 변질되며, 그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듯이, 선생도 이와 비슷한 권위의 하락 현상을 나타냈다.

중국어의 ‘선생(先生)’은 중국 원나라(1271~1368), 명나라(1368~1644), 청나라(1644~1912) 시기에 자주 관상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노래를 직업으로 살아가거나 의사 노릇을 하거나 풍수를 보던 사람을 가리킬 때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¹⁰⁾. 한국어에는 관상을 보고 혹은 점치는 사람을 ‘사무(사巫)’라고 했으므로 이 분야에서는 중국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유학 덕행을 조소하는 면에서 중국어 선생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볼 수 있다.

3. 조선시대 ‘선생’에 관한 문화 분석

중한 문화교류과정에서 유교문화가 미친 영향으로 ‘선생’은 경어범주로서 한국어에 차용되어 먼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기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한 관부(官府)에 앞서 재임했던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용어를 사서(史書)와 현재에 사용되는 한국어에서 찾는다면, 사(師)·부(傅)·사부(師傅)·박사(博士)·사유(師儒)·사표(師表)·훈장(訓長)과 스승·교육자(教育者)·교사(教師)·교원(教員)·교수(教授) 등이 있고, 중국어에서 차용하여 쓰이던 ‘사군(師君), 존사(尊師), 부자(夫子), 사부(師父), 스승(師)’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존중을 나타낸 단어도 있다.

중국어의 ‘선생(先生)’이란 단어는 사용시초에는 남녀 분별없이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용되던 과정에서 점점 남성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주로 유가문화의 전파, 발전과 긴밀히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선생’의 의미기능은 ‘빈부불등(分貧富), 존비불등(分尊卑), 등급불등(分等級), 남녀신분불등(分男女), 연령불등(分長幼)’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10) 袁洁 左广平, 『称谓語“先生”的歷史演變及文化解析』, 『青年文學家』, 2009年第19期: 138면

의 영향으로 자주 정치지위가 높고 연세가 많으신 남자를 가리킨다는 말이다. 한국 조선시대 신홍사대부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성리학은 조선 개창 이후 국시(國是)의 하나로 되면서 보급,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인식이 깊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직접 실천하는 인물들도 배출되었다. 조선 건국초기에는 불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유학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치국교육의 방침으로 삼아진다. 남성의 권리나 지위 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 여성을 업신여기었다. 여성 대다수는 가장권(家長權)이 절대화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사회질서 속에서 살았다. 이 제도와 질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사회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유교적 통치이념인 충효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요즘에 인식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희박했고 더욱이 여성의 인권은 전혀 무시되다시피 했다. 남녀불평등의 현상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이념이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남존여비라는 말로 용어화(用語化)하고 관행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또는 이념적·도덕적으로 강조되었다. 예컨대, 삼종지의(三從之義), 부창부수(夫唱婦隨), 여필종부(女必從夫) 등의 말들을 강조하여 남성을 존대하고 여성인 자신을 비하하도록 하였다. 그 문화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선생'은 [+지위], [+남성], [+존칭], [+지식], [+덕행], [+칭찬], [-혈족]과 같은 의미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체제의 발전에 따라 '선생'이 작용하던 유교문화가 파괴되어지면서 선생이 나타난 [+지위], [+남성], [+존칭], [+지식], [+덕행], [+칭찬], [-혈족] 등 의미특정의 균형상태도 깨졌을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까지 중국 지역의 유교 문화가 '공자를 비롯한 유가사상을 없애라(打到孔家店)'는 호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중체서용(中體西用)'과 '서체중용(西體中用)'이라는 문화 조화교리가 나타났으므로 중국어에서 나온 '선생'이란 단어는 의미가 많이 변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는 유문화가 일부의 배척을 받았지만 결코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다. 조선시대(1392년~1910년)에는 유교화란 진흥이론(儒教振興論)의 추진에 한국유교문화는 일정한 궤적에 따라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내적 문화 요인으로 한국어 '선생'은 계속 존칭범주에 귀속되어 쓰였다.

이에 따라 선생에 대한 존경과 예절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예를 들

면, 선생이 부르면 곧 응답하고, 앉아 있으면 즉시 일어났다.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에는 땅에 뵈고 대답하고, 먼 곳에 있으면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선생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 선생을 모시고 다닐 때에는 너무 멀지 않게 뒤따르면서, 혹 길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번 읍(揖 : 맞잡은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 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 예절)하고 곧 헤어져 선생을 제쳐놓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선생에 대한 새로운 존송 관념도 일어났다. 왕조 말기에는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해이해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교적 정통 사상의 재정립과 함께 선생에 대한 관념도 복고적이 되었다. 즉, 성리학적 윤리 도덕의 실천에 앞장서고 학문적 기반이 확고한 인물만을 선생이라고 불렀다. 또,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자 서방 정치제도의 영향으로 서양인 교사들은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소개, 전수하여 일제 식민지화에 대항하는 항일구국운동에 상당히 기여를 하였다. 이 밖에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계몽, 민족 교육, 항일 사상고취를 위하여 민족학교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이 세운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통하여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 운동 지도자를 양성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 시켜왔다. 이 시기에는 교육 활동에 투신한 인물은 물론, 민족의 사표로서 학덕을 갖춘 인물들이 ‘선생’이라 불려졌다¹¹⁾. 다시 말하면, ‘선생’은 지식이나 인격적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 졌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직함으로 부르거나 직책을 성의 밑에 붙여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후세에 올 수록 이러한 관례가 더 일반화되어서 ‘이서방(李書房), 박주사(朴主事), 오진사(吳進士), 최생원(崔生員)’등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이러한 호칭이 점점 낮아져서, 아무에게나 ‘선생’이라고 부르듯이, 진짜로 ‘진사’나 ‘침지’가 아니더라도 성인 남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였다. 요 근

11) “趙 선생! 당신은 교육자요, 교육자는 뒤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며 되는 거요.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이니 선생은 열심히 교육사업해 가지고 학생을 훌륭히 길러 내서 제2의 독립운동, 제3의 독립운동의 일군을 길러 내야 하오. 趙 선생은 지금 뛰어들지 않아도 되니까 뒤에 남아서 뒷일 맡아 봐요. 어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입니까?” <스승의 길>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農園文化社 1984年7月 : 218

대에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한국네트워크 통신언어에는 ‘선생’에 관한 화용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 의미기능이 ‘선생’이 나타난 의미 기능과 반대로 존경 어감이 약화되었다. 한편,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계급화가 소멸되고 계급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신분계층 등도 없어졌으므로 ‘선생’은 화용론 측면에서의 어미변체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호칭어가 사회생활, 심리상태와 인간관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풍습의 영향, 집체 의식의 작용, 언어 심리의 변환 및 지나친 새 단어의 사용 등 원인으로 ‘선생’에 관한 의미기능 또한 이에 따라 상응한 변화가 생긴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형성, 네트워크 발전과 함께 유머, 풍자, 조롱을 지닌 은어는 특유의 의의를 드러낸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터넷 웹 상에서 클릭율과 방문율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현실에서 기원하여 또 현실과 다른 신조어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한국어 ‘선생’이란 단어가 중국어에서 차용해서 쓰였는데 의미범주화 과정에는 오히려 중국어 ‘先生’과 다른 의미를 나타냈다. 사회가 발달할 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간편화되게 마련이며 ‘先生’의 높임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 인터넷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어 ‘先生’은 고유한 의미에서 이탈해서 접미사로 변하고 있다.¹²⁾

사회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운영의 체제화와 상품화에 인해 중국어 ‘선생’의 의미기능은 접미사로 변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교착어 특징 및 고유한 표음 특징, 그리고 ‘선생’ 뒤에 부착하는 접미사 ‘님’의 활용기능에 의해

12) 주로 웹사이트, 게임, 제품, 영화에 기초하여 심지어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하여 명명했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骨頭先生’은 신비한 액션 게임이고 ‘憨豆先生’은 해학적인 희극 영화이다. 이 밖에 또 ‘나라이름+선생(中國,印度先生)’, ‘직업+선생(聒心先生-간식을 파는 사람, 算命先生-점치는 사람, 貨郎先生- 생활용품 도매를 하는 사람, 足球先生- 축구를 직업으로 한 사람)’, ‘사람의 특징+선생(僵尸先生, 范文先生, 陰陽先生, 大嘴巴先生, 大个子先生, 可愛先生, 時尚先生, 魅力先生, 豌豆先生, 健美先生)’, ‘명사+先生(靈幻先生, 絕望先生, 无聊先生, 關東大先生, 聊齋先生, 差不多先生, 夢游先生, 熊先生)’, ‘동사+先生(琢磨先生, 撞邪先生)’, ‘형용사+先生(大先生, 小先生)’ 등이 많이 있다. 중국어 ‘先生’이란 호칭어는 형식이 다양하고 용법이 특이하여 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도록 끌어들이는다. 의미에서 보면 ‘선생’과 결합하여 쓰이는 단어가 직업 행위를 나타내거나 유머, 풍자를 나타내기에 선생의 원래 의미에서 이탈해졌다. ‘선생’의 어휘의미가 변하고 문법적 의미가 강화되어 단어의 예측성, 생산성이 강해진 것이다. 이로써 ‘선생’을 접사로 한 대량적인 파생어가 생성되었으며 결국 독립형태소에서 접사형태소로의 변화를 완성했다. 李丹. 詞義的非范疇化特征-以韓國語稱謂敬語 ‘saseŋ’* 中央民族大學學報, 2013(3):137,138

‘선생’의 존경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마무리

조선시대는 유학의 흥성 시기라고 했는데, 유학 이미지 대변인으로서 등장 하던 ‘선생’은 유학 품행, 유학 학식, 유학의 실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생’은 한 관부에서 앞서 재임했던 인물, 산림에 은거하여 관직이 없으면서 학덕을 겸비한 처사, 교육자나 학문적으로 성취한 인물, 학문과 지조가 있는 선비, 및 학문적 전수 관계에 있는 스승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선생’의 영향으로 한국어 ‘선생’은 부정 또는 혐오의 의미가 내포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존칭어로 쓰였다. 중국어에서 차용하여 쓰이던 한국어 ‘선생’의 의미변화는 중국어와 달리 조선시대까지 존중을 나타낸 의미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은 한국의 사회체제, 정치체제, 사회민속, 사람들의 가치관 등 외적 요소의 영향, 또한 한국 고유적인 문화, 문자특징, 언어특징과 같은 내적 요인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남지대, 『조선초기의 경연제도-세종, 문종년간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6』, 1980.
- 李志慶, 『16世紀 士林派 政治思想 研究- 晦齋 李彥迪을 中心으로』, 『사회과학 연구제8집』, 1995.
- 禹仁秀, 『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 『歷史教育滄集 5』, 1983.
- 陳慧, 『先生稱謂研究』, 『武漢大學碩士論文』, 2005.
- 李丹, 『詞義的非范疇化特征-以韓國語稱謂敬語‘səseŋ’』, 『中央民族大學學報』, 2013(3).
-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 서울시스템, 『국역 조선왕조실록』 CD, 1998.
- 조선왕조실록연구회 · 서울시스템, 『고종순종실록』, 1998.
-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스승의 길』. 農園文化社, 1984.
- 장신향, 『선생이란 호칭』, 『오늘날의 국어생활』, 박이정, 2007.

【국문초록】

중한 두 나라는 예로부터 문화교류가 빈번하였고, 이에 따른 언어문화의 접촉은 대규모적인 어휘이식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자어 ‘선생’을 예로 하여 분석한다면 사회 제도,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 활용 측면에서 중국어 ‘선생’과 다른 점이 많다. 이것은 주로 ‘선생’이란 단어에 관한 내적 그리고 외적 요인의 귀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선생, 의미, 문화

【Abstracts】

Analysis about the honorific “sir” in Korean era

—Taking the honorific “sir” of “the memoir about North Korean Dynasty” for example

Li, dan

In the process of Cross-cultural contact in China and South Korea, a lot of Chinese characters word was borrowed into Korean. Taking the honorific “sir” in Korean words for example, a word “Sir” which borrowed over from Chinese, in the process of categorization of vocabulary, with the change of the social system, political system,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semantics and pragmatic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Due to the effec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honorific meaning of “sir” has been maintained.

Key words : Sir ; Semantic; culture

이 논문은 2013년 1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